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INCHEON FREE ECONOMIC ZONE

GLOBAL BUSINESS INNOVATION HUB

IFEZ

IFEZ JOURNAL [KOR] 2026. 09+10 VOL.131

ifez Journal



KOR

이번 호 표지
송도국제도서관

Vol.131 2026 09 + 10

IFEZ JOURNAL
웹진 바로가기
www.ifez.go.kr/journal

ifez Journal
IFEZ BIMONTHLY MAGAZINE
2026. 09+10 Vol. 131

발행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발행일
2026년 9월 1일
발행호
통권 제13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54-6280548-000013-07
담당부서
미디어문화과
기획·디자인
웨스트코㈜

IFEZ JOURNAL
웹진 바로가기
www.ifez.go.kr/journal



Cover story
AI와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도시 IFEZ.
송도국제도서관에서 시작되는 가을의 여유 속에서
사람 중심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봅니다.

CONTENTS



BUSINESS

04 SPECIAL THEME
AI CITY, IFEZ

10 ISSUE
자연을 품은 도시, 세계를 잇는 IFEZ

12 6-CORE
IFEZ GLOBAL CORE
Fourth. 미래 기업을 키우는 도시의 힘

14 IFEZ NEWS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



WITH US

20 SPECIAL INTERVIEW
IFEZ 내 국립박물관을 만나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4 INSIDE
미래를 설계하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다
<영종계획팀>

28 NOTICE
Insight in site, IFEZ



LIFE

32 TRIP
IFEZ 가을 독서 여행
<IFEZ AUTUMN BOOK TRIP>

36 TREND
2026 Analog Goods Collection

38 CULTURE
IFEZ 문화소식
<아트센터인천, 트라이보울>

40 MICE
송도컨벤시아
ISSUE & CALEND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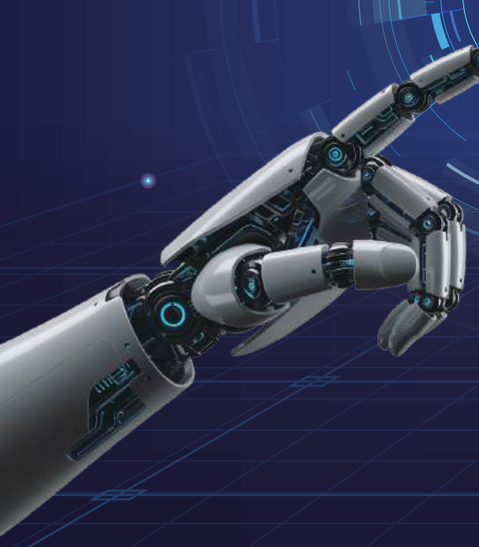
42 EVENT
일타강사 / 일상 한 컷 /
Opinion Leader's Review / 후기를 부탁해







AI CITY, IFEZ



스마트시티를 넘어 AI 시티로

데이터를 연결하는 스마트시티에서 도시가 스스로 학습하고 움직이는 AI 시티로. 도시의 두뇌를 깨우다.

IFEZ는 지난 20여 년간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며 도시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왔다. 이제 그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위에 AI를 더해, 도시가 스스로 상황을 읽고 예측하며 더 나은 대응을 찾아가는 'AI 시티'라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도시를 운영하는 방식과 시민의 일상, 산업의 성장, 세계 도시와의 협력까지 바꾸는 새로운 전환이다. 먼저 AI가 만들어 갈 IFEZ의 미래를 통해 AI 시티의 비전을 그려보고, 이어 지난 20여 년간 스마트시티에서 AI 시티로 한 걸음씩 진화해 온 IFEZ의 발자취를 살펴본다.



2040 년
2040년
AI 기반 스마트도시 완성(목표)

23 년
도시 데이터 확보 기간
(2003년~현재)

365 일
365일, 24시간
IFEZ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운영

6 억원
2026 TRYOUT AI
실증사업 지원 규모

600 만 유로
약 600만 유로 규모,
IURC 참여, 'AI 도시안전 국제
공동실증' 사업을 추진

10 만 명 관객
AI City 운영 첫 실증,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대형 야외 축제 인파

100 억원
4차 산업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실증 자금 지원

VISION FOR AI CITY

IFEZ의 AI가 바꿔갈 도시의 미래







1 AI—operation. 도시는 먼저 예측한다

IFEZ의 AI 도시 운영은 예측에서 시작한다. AI가 도시의 흐름을 분석해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실시간 관제와 대응을 지원한 뒤 그 결과까지 다시 학습한다. 예측-관제-대응-학습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운영체계다.
첫 실증 무대는 10만 명 이상이 찾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었다. AI는 혼잡지역을 예측하고, 행사 중에는 군중 밀집과 화재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했다. 행사 후에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축적했다.
스마트시티운영센터는 'IFEZ AI 시티 운영센터'라는 도시의 차세대 운영 허브로 진화할 예정이다. 실증을 거친 모델은 교통과 재난, 환경, 에너지 등으로 확장돼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2 AI—smart living. 일상은 더 똑똑해진다

AI 시티의 변화는 거대한 기술보다 시민의 일상에서 먼저 드러난다. 이동과 안전, 에너지, 건강 등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필요한 서비스를 더 빠르고 정교하게 제공한다. 도시가 변화와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대응하는 새로운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교통 혼잡을 줄이고, 재난과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미리 살피며, 도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자연어로 상황을 묻고 대응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는 AI 챗봇처럼 관제를 돕는 서비스도 확대된다. CES 2026에서 선보인 '인천 AI 시티 비전 선포'는 이러한 미래상을 압축해 보여줬다. AI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는 도시가 시작되고 있다.

3 AI—innovation hub. 도시는 산업의 실증무대가 된다

IFEZ의 AI 시티는 도시 운영을 넘어 산업 혁신으로 확장된다. 제조와 물류, 식품, 의약 등 산업 현장에 AI를 접목하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도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IFEZ 전역을 개방형 실증 무대로 발전시킨다.
특히 AI와 바이오의 융합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AI 기반 바이오데이터 분석과 정밀의학, 글로벌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함께 기술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강화한다. 축적된 바이오 기반에 AI를 더해 새로운 산업 혁신과 협력의 기회를 창출한다.

4 AI—global standard. 도시는 세계의 기준이 된다

IFEZ가 꿈꾸는 AI 시티는 하나의 지역에 머물지 않는다. 도시의 데이터를 AI가 학습하고 운영하는 모델을 표준화해 다른 도시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세계 주요 도시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AI 도시 전략과 기술, 운영 경험을 함께 나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모델과 윤리적 AI 거버넌스의 기준도 마련한다. 기술 경쟁을 넘어 AI를 어떻게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고민하는 것이다. IFEZ는 스마트시티의 경험 위에 AI의 지능을 더해, 세계 도시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미래도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ROAD TO AI CITY

스마트시티에서 AI 시티로, IFEZ가 걸어온 길

2012 2014 2017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8 2030

2012년
-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설립 (스마트시티 민·관 협력 법인(PPP))

2014년
- 청라지구 1단계 준공
- 송도지구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준공

2017년
- 송도지구 1~4공구 준공
- 인도에 스마트시티 플랫폼 드론 서비스 수출(2억 5천만 원)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개관 3주년 방문객 8천600여 명

개관 후 각국, 각계의 주요 인사들의 주목을 받으며 방문객 8천 600명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벤치마킹과 상호협력의 공간으로서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다.

2019년
- 필리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수출(1억 원)
- 송도지구 5, 7공구 준공
- 청라지구 투자2블럭 준공
- 벨기에 왕비,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방문



GLOBAL IFEZ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방문 국가

- 말레이시아 멀티미디어 장관(2015년 5월)
- 이집트 대통령(2016년)
- 미얀마 대통령(2016년)
- 벨기에 왕비(2019년)
- 콜롬비아 부통령(2019년)
- 코스타리카 대통령(2021년)
- 케냐 대통령(2022년 11월)
- 말레이시아 세렘반 시장(2025년)

※ 이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 총 90개국 방문

2021년
- 송도지구 6-1, 8공구 준공
- 청라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준공
- 제5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21)
- 2021 IFEZ 스마트시티 국제 심포지엄
- 인천스타트업파크 개소

<인천 스타트업파크, Let's Start Up>
인천스타트업파크 개소식

2021년 개소한 인천스타트업 파크.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및 바이오 융합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 청라지구 2단계 IHP 준공
- 2022 IFEZ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

2023년
- 영종하늘도시 1단계, 2-1단계 준공
- 2023 IFEZ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

2024년
- 인천스타트업위크 (ISW SURF 2024) 개최



2025년
- 영종하늘도시 2-2단계 준공
- 글로벌 톱텐 시티 위크 2025
- 'IFEZ 제로에너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시연회
- 기반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 준공



<AI 도시 이니셔티브 선언>

2025년 12월 1일, IFEZ는「글로벌 톱텐 시티 위크 2025」에서 세계 최초로 'AI 도시 이니셔티브(AI City Initiative)'를 선언했다. IFEZ는 AI가 도시의 핵심 두뇌로 작동하는 지능형 자율도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세계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IFEZ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 준공식

2025년 8월 1일, 'IFEZ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 준공식'이 개최됐다. IFEZ는 이 사업으로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 도약의 기반을 갖추게 됐다.



2026년
- 송도지구 6-8공구 관로구축 준공
- CES 2026에서 '인천 AI 시티 비전 선포'

2028년
- 송도지구 6-8공구 기반시설 준공(예정)
-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확대사업 준공(예정)

2030년
- 송도지구 11공구 기반시설 준공(예정)

<CES 2026, 인천 AI 시티 비전 선포>

인천경제청은 CES 2026에서 '목적지 인천-스마트시티에서 AI 시티로'를 주제로 '인천 AI 시티 비전'을 선포했다. 도시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 전략을 제시하며, 스마트시티를 넘어 글로벌 AI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인천의 새로운 방향을 세계에 알렸다.

자연을 품은 도시, 세계를 잇는 IFEZ

서해 갯벌과 철새를 품은 도시에서 시작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협력

자연을 지키는 일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서해 갯벌과 철새 이동경로를 품은 IFEZ는 세계적인 생태축을 기반으로 국제 생물다양성 협력을 이끌며, 자연과 첨단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EAAFP 국제협력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ISSUE 1

철새가 잇는 도시,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 플랫폼



철새는 국경을 넘지만, 생존은 하나의 생태축 위에서 이루어진다. 번식지와 중간기착지, 월동지가 건강하게 연결될 때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된다. 인천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의 핵심 도시로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송도와 영종, 강화를 비롯한 인천의 서해 갯벌은 세계적인 철새 이동경로의 중요한 거점이다. 특히 저어새를 비롯한 멸종위기 물새들에게는 번식과 휴식을 위한 필수 서식지로 기능하며, 세계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천은 2009년 EAAFP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한 이후 국제회의 개최와 공동연구, 교육 프로그램, 시민 참여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국제 철새보전 협력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다. 2025년에는 EAAFP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임, 국제 환경 거버넌스를 이끄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생태 보전의 성과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1995년 전 세계 430마리에 불과했던 저어새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속적인 보전 활동을 통해 2025년 7천 마리를 넘어섰다. 인천에는 현재 전 세계 저어새의 절반 이상이 서식하며, 남동유수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번식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히 한 종의 개체수가 증가했다는 의미를 넘어 갯벌과 습지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이자, 도시와 자연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ISSUE 2

생물다양성에서 지속가능도시로, IFEZ의 새로운 비전



IFEZ는 산업과 혁신의 도시를 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글로벌 생태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송도국제에코센터 조성사업이 있다.
인천경제청은 세계적인 습지 보전 전문기관인 영국 WWT와 협력해 송도국제도시에 국제 수준의 생태교육·연구 거점을 조성하고 있다.
런던습지센터를 모델로 추진되는 송도국제에코센터는 단순한 생태시설이 아니라 습지 보전과 환경교육, 국제협력, 시민 참여를 아우르는 복합 플랫폼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연과 도시를 연결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 세계 시민이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EAAFP 2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인천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IUCN 생물다양성 우수 인증을 획득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생태 보전과 협력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는 철새와 갯벌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물다양성을 도시 경쟁력으로 확장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 IFEZ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연구기관,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연과 산업, 도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IFEZ Biodiversity Facts

- **2009년** EAAFP 사무국 송도 유치
- **20주년** EAAFP 국제협력 기념행사 개최
- **세계 최초** IUCN 생물다양성 우수 인증 획득
- **18개 정부 · 42개 파트너**
  참여하는 국제 철새보전 협력체
- **전 세계 저어새의 약 54%** 인천에서 서식
- **남동유수지** 세계 최대 규모
  저어새 번식지 중 하나
- **WWT와 MOU 체결**
  송도국제에코센터 공동 추진
- **송도국제에코센터**
  생태보전·환경교육·국제협력을 아우르는
  글로벌 생태 플랫폼

WWT와 MOU 체결



IFEZ GLOBAL CORE

Fourth. 미래 기업을 키우는 도시의 힘

혁신은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창업부터 투자, 실증,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생태계가 갖춰질 때 비로소 새로운 산업이 성장한다. IFEZ는 스타트업파크를 중심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CES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혁신기업이 성장하는 도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 플랫폼, 인천스타트업파크

START UP PARK INCHEON

인천스타트업파크는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 실증을 중심에 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다. 창업기업이 기술 개발을 넘어 투자와 실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투자기관이 함께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며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위치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
시설 규모	연면적 **48,898m²**
사업비('26)	**13,050,000**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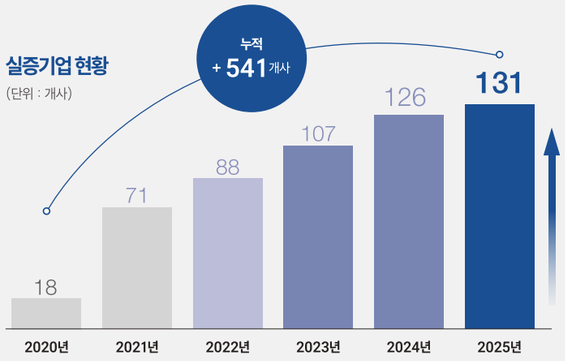
생태계	미래 신성장동력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투자자 및 산·학·연 연계, 붐업페스티벌 등 4개 프로그램
실증	공공·민간, 대형 실증지원(제품, 서비스 조기 상용화) 등 4개 프로그램
투자유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컨설팅 지원 등 3개 프로그램
글로벌 진출	글로벌 박람회 참가 지원 및 글로벌 실증 등 3개 프로그램

IFEZ 입주 스타트업 수

2021년	80개사
2022년	79개사
2023년	79개사
2024년	90개사
2025년	98개사

IFEZ 입주 스타트업 매출

2021년	1,390억 원
2022년	2,002억 원
2023년	2,096억 원
2024년	3,491억 원
2025년	2,826억 원



성장을 잇는 프로그램

기술은 개발에서 끝나지 않는다.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실증과 투자,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해 스타트업이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TRYOUT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실증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의 기술 검증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붐업 페스티벌은 스타트업과 투자자, 대·중견기업을 연결해 투자와 협력 기회를 넓히고, CES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CES 2025 주요 성과

홍보관 방문객 14,101명

지원기업 61개사

언론보도 2,065건

혁신상 12개사 13개 수상



CES 2025

IFEZ에서 도약하는 인천 스타트업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성과

나인와트	에스티에스바이오	레이븐머터리얼즈	지금여기	버시스
20억 원 LS일렉트릭 투자유치	22억 원 시범제품 구매 매칭	747만 달러 두바이 수출계약 체결	32개 전국 지자체 및 자치구 MoU 체결	4년 연속 CES 혁신상 수상
주요기술 AI, SW 개발(그린리모델링) 및 데이터분석	**주요기술** 폐쇄형 약물 전달장치(CSTD)	**주요기술** 특수 광촉매 활용 바이러스 및 유해물질 제거 4G 나노반도체 첨단소재	**주요기술** 인공지능 기반 모바일&키오스크 대형폐기물 비대면 간편배출	**주요기술** AI 기반 사용자 인터랙션 음악 감상 솔루션

ifez News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

IFEZ는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글로벌 톱 텐 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을 소개한다.

1

AI 도시 운영 첫 실증… 펜타포트서 AI 기반 도시관제 서비스 가동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26에서 AI 기반 도시관제 서비스를 처음으로 실증 운영했다. 자체 개발한 'AI 군중 위험상황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을 활용해 10만 명 이상이 찾는 대규모 행사장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AI를 도시 운영에 본격 적용하는 첫 사례다. 이번 실증에서는 예상 관람객과 동선, 기상정보를 분석해 위험지역을 예측하고, 행사 중에는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군중 밀집과 화재, 연기, 폭력, 응급상황 등을 감지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위험 발생 이력과 대응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자동 생성해 향후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축적한 스마트시티 운영 경험과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도시 운영의 핵심 엔진으로 활용하는 'AI 운영 도시(AI Operating City)'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

송도자원순환센터 환경캠페인·시민인식조사 실시, 시민 5,376명 참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환경공단과 함께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자원순환 인식 제고를 위한 '송도자원순환센터(SRF) 적법처리 환경캠페인'과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5,376명의 참여자 중 96%는 분리배출 기준을 알고 있었으며, 95%는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환경시설 운영과 생태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확인됐다. 환경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생태교육 프로그램(22%)과 시설 접근성 개선(21%) 요구가 높았으며, 조성 예정인 송도국제에코센터에 대해서는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28%), 친환경 도시 이미지 향상(27%)을 기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캠페인과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자원순환 정책과 환경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3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수요처와 협력 강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월 8일 송도 G타워에서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수요처 간담회를 열고 재이용시설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수요처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종합에너지㈜ 등 관계자가 참석해 재이용수 공급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및 관로 노후화에 따른 도시 안전성 확보와 재이용수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ESG 경영 실현과 자원순환 기반의 친환경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2004년 설치된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2023년 역삼투압(RO)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 수질을 개선했으며, 현재 연간 133만㎥의 재이용수를 생산 및 공급해 산업용수와 지역난방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환경공단과 협력해 관련 제도와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수자원 재이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4

송도 11-1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실시설계 착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월 7일 송도 G타워에서 'IFEZ 송도 11-1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송도국제도시 마지막 개발사업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송도 전역에서 축적한 스마트시티 구축 경험을 집약해 미래도시 모델을 완성하는 프로젝트다. 실시설계는 교통, 방범·방재, 환경, 시설물 관리, 대시민 정보제공 등 주요 공공기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기반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지능형 CCTV와 스마트횡단보도, 실시간 대기질·유수량 감시, 교통신호 제어, 버스도착정보(BIT), 도로교통정보(VMS), 현장시설물 원격관리 등 5대 정보통신 분야 기반서비스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인천경제청은 2027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송도 11-1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ifez News

5

인천경제청, 제34회 전국 경제청장협의회… 경자구역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 개정 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월 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제34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용도변경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가 반복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투자 유치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용도변경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제안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유재산 관련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불합리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6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8년 연속 S등급 달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최우수(S) 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8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2025년도 추진계획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로, 인천경제청은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유치와 미래 발전전략 수립, 도시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7억 9천만 달러를 유치해 목표 대비 138.2%를 달성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국내외 주요 기업 15개사를 유치하며 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IFEZ 비전·전략 2040' 수립을 통해 미래 발전 전략을 체계화하고, 청라하늘대교 개통과 미단시티 개발사업 정상화, 국제학교 유치 추진, K-CON LAND 사업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과 산업 기반을 확대했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도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7

K-바이오 랩허브 3분기 착공, 2028년 송도에 바이오 창업 허브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이 올해 3분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7공구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지에 조성되는 이번 사업은 각종 행정절차와 설계 검토를 마치고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공사 착공과 함께 체계적인 공정 및 사업 관리를 통해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바이오 랩허브는 총건축비 93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2만 375㎡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 바이오 창업지원 핵심 인프라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경제청, 연세대학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등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이오 스타트업들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연구와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랩허브가 준공되면 첨단 연구장비와 창업지원 프로그램, 오픈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한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과 기술사업화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8

인천, 1조 원 규모 AI 커넥티드카 국비사업 유치 본격화

인천시가 1조 원 규모의 AI 커넥티드카 국비사업 유치를 위해 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하고, AI 커넥티비티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열린 '인공지능(AI) 커넥티드 모빌리티 전담조직 점검회의'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시 관계 부서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인천테크노파크, 인하대학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비사업 유치 전략과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담조직 발족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로봇랜드와 청라 커넥티드카 평가인증센터를 기반으로 금융투자와 연계한 기업 주도형 AI 커넥티비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 개선과 세제 지원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AI 커넥티드카와 사이버보안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ifez News

9

송도컨벤시아의 학술·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알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관광공사는 7월 23일 국내 학·협회와 연구기관, 국제회의 기획사 관계자 30여 명을 초청해 '2026 송도컨벤시아 팸투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학술회의와 국제회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송도컨벤시아의 대형 볼룸과 회의시설을 둘러보고 인천시의 회의 지원 정책과 주변 숙박 인프라를 살펴봤다. 이어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과 경원재 바이 워커힐, 센트럴파크를 방문하며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의 MICE 인프라를 직접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G타워 전망대를 찾아 문화·관광 자원도 함께 둘러보며 송도의 국제회의 개최 여건을 확인했다. 인천경제청과 인천관광공사는 이번 팸투어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마케팅 전략에 반영하고, 핵심 학·협회와 국제회의 기획사를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회의시설과 숙박, 문화·관광 인프라가 도보권에 집약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의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외 MICE 행사 유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0

청라호수공원·커낼웨이 "새단장" 물과 빛이 어우러진 수변공간 개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호수공원과 커낼웨이 일원의 친수시설 및 경관조명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8월 5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이번 사업은 청라호수공원 '물빛마당', 커낼웨이 '물결마루'를 새롭게 조성하고, 정서진문화공원 일원의 경관조명을 개선해 낮에는 물과 함께 휴식을 즐기고 밤에는 아름다운 수변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물빛마당은 235㎡ 규모의 수변형 공간에 커튼분수와 쿨링포그, 그늘쉼터 등을 갖춘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조성됐으며, 물결마루는 45m 규모의 수로형 체험시설과 휴게시설을 마련해 시민들이 수변 가까이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정서진문화공원 일원의 경관조명도 수변 경관과 보행환경을 함께 개선해 청라의 야간 명소로서 매력을 더했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물과 자연을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의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과 시설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11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기항지 테마 공연으로 관광 매력 높인다

인천시가 크루즈 기항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서 해외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기항지 테마 공연'을 운영한다.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크루즈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관광 콘텐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승선장을 무대로 지역 대학 응원단의 치어리딩과 K-POP 댄스, 마술,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선박별 체류 일정과 승선 인원 등을 고려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상품, 시티투어 등 기존 관광 프로그램에 기항지 테마 공연을 더해 크루즈 관광객에게 더욱 풍성한 체류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공연은 7월 말 아도라 메디테라니아호와 8월 초 비지오호를 시작으로 하반기 인천을 찾는 크루즈선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인천시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인천만의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2

"도심 속 여름 바다" 제7회 송도해변축제 성료

연수구와 연수문화재단이 8월 8일부터 15일까지 송도달빛공원에서 개최한 '제7회 송도해변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축제는 대형풀과 클라이밍풀, 북극곰풀 등 테마형 물놀이장과 인공백사장, 모래놀이터를 비롯해 물총대전, 버블폼파티, 카누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옛 송도유원지의 분위기를 재현한 '송도유원지존'에서는 회전목마와 바이킹, 워터롤러, 페달보트 등을 선보여 세대가 함께 추억을 나누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축제 기간에는 버스킹과 랜덤플레이댄스, 비어요가, 러닝교실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개막일과 폐막일에는 각각 가수 채연과 크라잉넛의 축하공연과 불꽃 공연이 열려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먹거리존과 캠프닉존, 포토존, 자율돗자리존 등 편의시설도 함께 운영돼 도심 속에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는 대표 여름축제로 시민들의 발길을 모았다.



Interview No. 15

IFEZ 내 국립박물관을 만나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자리 잡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한글이라는 세계 문자사에서 기념비적인 문자를 가진 나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탄생한 박물관이다. 인천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국제 협력의 시야를 넓히고 있는 신용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제협력 특보는 인하대학교에서 비평문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문학평론가이자 계간『황해문화』 편집책임을 맡았던 김명인 신임 관장을 만나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현황과 미래상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신용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국제협력특보



김명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장



신용석(이하 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 취임을 경하드립니다. 인천지역사회는 물론 수도권의 역사·문화계에서는 김명인 교수님의 취임을 긍정적인 인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의 학문적 배경을 알려주세요.

김명인(이하 김)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미흡한 제가 어쩌다 보니 이처럼 각별한 소명을 지닌 국립문화기관을 이끌어 갈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대 한국문학을 전공했고 오랜 기간 대학에서 한국현대소설과 비평문학을 가르치면서 문학평론을 썼으며, 새얼문화재단이 발행하는 계간『황해문화』편집을 맡아왔습니다. 문자가 인간의 생각을 텍스트의 형태로 변환하는 의사소통의 물질적 매개라고 한다면 제가 전공한 문학이라는 분야, 또 저널리즘이라는 분야는 그러한 인간의 문자화된 소통 행위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라는 점에서 이 자리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설립되게 된 동기와 인천광역시 특히 송도국제도시에 자리 잡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현존하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자들과 인류사에 명멸해 온 문자의 흔적들을 수집, 연구, 전시함으로써 인류문화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보전하고 선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박물관입니다. 이런 박물관이 인천의 송도신도시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송도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첨단 문화도시로서의 풍부한 인프라, 국내 제2의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인천에 제대로 된 국립문화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인천시민들의 열망, 그리고 인천시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상승작용을 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프랑스의 중세도시 피작시의 샹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문자박물관 샹폴리옹은 어떤 박물관인가요.

김 샹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은 로제타 스톤에 새겨진 고대 이집트 문자를 해독해 낸 천재 언어학자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을 기리기 위해 그의 고향인 피작시에 1986년에 건립된 세계문자박물관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루브르박물관 등에서 이집트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풍부한 문자 유물을 기증받거나 대여받아 높은 전시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 이번 샹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의 특별 전시회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연구하고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부설 연구기관을 만드는 일을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립된 '국립세계문자연구소'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박물관 내부의 연구 기능을 보다 강화한 부설 연구소의 형태로 시작될 것입니다. 인구와 도시 규모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부족한 인천에서 우리 박물관이 국립문화기관으로서 걸맞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은 태생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 소장 자료와 박물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챗봇 개발계획은 언제쯤 가동이 되는지요.

김 우리 박물관은 현재 박물관 일반 정보는 물론 소장 자료 전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이며, 빠르면 올해 11월까지는 홈페이지 화면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영국박물관 등 몇 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세계 최첨단의 시스템입니다.

신 한글의 편의성으로 우리가 IT 정보혁명에 앞장설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같은 기관에서 전문적인 연구가 수반되었으면 하는데 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 올해 7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여 동안 샹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한글-한 왕의 꿈, 만백성의 말>은 저희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샹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이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공동 개최하는 특별전으로서 유럽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열리는 한글 관련 전시입니다. 이 전시에는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해례본(복제본)>을 비롯한 한글 유물들과 기메박물관 등 프랑스 현지의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신 국립세계문자연구소 설립과 인천 지역의 문화기관들과의 연계에 대한 구상은 어떤 것인가요.

김 우리 박물관은 세계 각국과 각 민족의 다양한 문자와 문자문화를 연구하고 소개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문자의 역사와 현황, 다양한 특색을 더욱 깊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기관 성격 국립박물관
운영 재단법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17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바로가기

김 디지털 시대에 대한 적응력이라는 점에서 한글의 편의성과 우수성이 새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부설 국립세계문자연구소 설립을 통해 한글의 이러한 디지털 적응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영어 일변도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세계적인 문자 다양성을 지켜나가는 원동력으로 삼는 것은 우리 박물관의 주력 사업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태도가 진지하고 탐구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개관 2년 만에 연간 관람객이 100만을 상회하는 성과를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계획 중인 특별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김 우리 박물관은 내년인 2027년부터 <세계문자사 횡단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매년 두 차례의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027년 상반기에 개최될 동남아시아 문자와 서사 관련 전시, 하반기에 중국 고궁박물원과의 공동 기획으로 열리는 중국 한자 관련 대형전시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우리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진정한 글로벌 문자박물관으로서 도약하는 확고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세계적인 박물관으로의 도약을 인천시민들과 함께 기원 드리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E KEY PLAYERS OF IFEZ

영종계획팀

미래를 설계하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다

도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하나의 도시가 성장하기까지는 수많은 계획과 협의, 그리고 오랜 시간 축적된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보다 수십 년 뒤의 변화를 먼저 바라보고, 시민의 삶과 도시의 경쟁력을 함께 설계하는 사람들. 영종국제도시의 성장과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그려가는 영종청라계획과 영종계획팀은 IFEZ의 다음 지도를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고 있다.

글. 황예지 사진. 이덕재





'바이오특화단지'와 '항공문화복합도시'를 콘셉트로 계획 중인 영종하늘도시 전경

영종의 오늘을 관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다

영종계획팀은 영종국제도시 개발사업과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구 지정을 함께 추진하는 부서다. 영종하늘도시와 미단시티, 한상드림아일랜드, 공항신도시, 운서·운남지구 등 영종국제도시 전반의 개발계획을 관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구 지정 절차와 관계부처 협의도 병행하며 IFEZ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 성장의 중심을 설계하다

영종국제도시에는 주거와 산업, 관광·레저 등 서로 다른 성격의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영종계획팀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업은 영종하늘도시다. 개발 가능한 유보지와 이미 조성된 도심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기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에는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항공문화복합도시'를 콘셉트로 한 투자유치 사업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대한항공 운항훈련센터와 연계한 항공 MRO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하며 미래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영종계획팀은 산업과 정주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자족형 국제도시를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
새로운 성장축을 그리다

도시는 한 번 만들어지면 수십 년 동안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영종계획팀은 현재의 수요뿐 아니라 미래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러한 철학은 현재 추진 중인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률이 이미 90%를 넘어선 만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발축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영종계획팀은 강화군 남단의 농생명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블루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기존 국제도시와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을 구상하고 있다.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송도·영종·청라에 이어 강화까지 성장축을 확장하고, IFEZ가 축적한 도시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인천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미래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다 너머 미래를 바라보며 영종국제도시의 청사진을 그리는 영종계획팀

영종국제도시의 계획과 성장 위에서
시민들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다.



사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관문도시

대규모 개발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법령 해석 차이와 기관 간 협의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소통과 끈질긴 협의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는 순간이 가장 큰 보람으로 남는다. 인천국제공항과 미단시티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 체결은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다. 영종계획팀이 꿈꾸는 영종국제도시는 공항과 바다를 품은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관문도시다. 관광·레저와 국제업무, 항공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교육·문화·의료 등 생활 인프라까지 두루 갖춘 도시. 영종계획팀은 오늘도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며 IFEZ의 다음 성장 지도를 그려가고 있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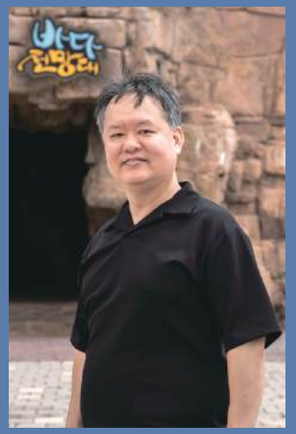
나에게 도시계획이란 [ ]다.



[약속]

개발사업은 다양한 기관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며 지역에 꼭 필요한 계획을 하나씩 완성해 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 성과가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도시를 만드는 것. 저에게 도시계획은 시민과 신뢰를 쌓고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입니다.

최영주 영종계획팀장



[브랜드]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세 개의 연륙교를 품고 국내외를 연결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과거 영종도와 용유도, 무의도였던 이곳이 지금의 국제도시로 성장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결실이 하나씩 드러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쌓여 영종국제도시만의 경쟁력이 되고, 결국 인천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호 주무관



[마중물]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을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지역이 다시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실질적 변화를 향한 바람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생활환경이 나아지길 기대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시계획은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일이 아니라 지역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도시계획은 지역의 변화를 시작하는 마중물입니 다.

이형윤 주무관

Insight in site, IFEZ

IFEZ는 세계와 연결되는 관문이자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다. 이곳에는 유엔(UN) 기구부터 국제기구, 인천글로벌캠퍼스(IGC), 글로벌센터까지 각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자리하고 있다.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IFEZ의 주요 기관과 단체들의 소식을 전한다.



IGC운영재단, 네비게이터 데이 2026 개최 국제공동 R&D 협력 강화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운영재단은 최근 'IGC 네비게이터 데이(Navigator Day) 2026'를 개최하고 연구자의 공공 연구개발(R&D) 기획역량 강화와 정부 R&D 전문기관과의 협력 확대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IGC 국제공동 R&D 기획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를 비롯해 IGC 입주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진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정부 R&D 사업과 연계한 연구 기획과 협력 방안 등을 공유하며 국제공동 연구 기반 확대를 모색했다.

IGC 운영재단은 해외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정부 공공 R&D와 연계해 연구 기획부터 과제 발굴, 전문기관 매칭, 네트워크 구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스마트제조와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국제공동 연구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정부 R&D 참여를 확대해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IGC INCHEON GLOBAL CAMPUS

재단/법인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UNDRR 동북아사무소·GETI 운영 지원 2031년까지 연장

인천 송도에 위치한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동북아사무소(ONEA)와 국제교육훈련연수원(GETI)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이 2031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UNDRR 및 GETI와 기존 지원 약정을 연장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연장은 한국을 동북아 재난위험경감 협력의 거점으로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UNDRR은 국제사회의 재난위험경감 전략 개발과 유관기관 협력을 총괄하는 UN 산하 기구다. 2010년 송도에 설립된 동북아사무소는 한국과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등 동북아 5개국의 재난위험경감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교육훈련연수원(GETI)은 전문가 발굴·지원과 전문지식·혁신기술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약정 연장으로 송도는 동북아 재난위험경감 협력과 국제 교육훈련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기관 성격 국제기구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GGI, 캄보디아·라오스와 녹색성장 협력 확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김상협 사무총장이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공식 방문해 기후금융 확대와 탄소시장 활성화, 수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는 환경부 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열고 3억 달러 규모의 톤레사프 유역 사업과 파리협정 제6조 이행 방안을 협의했으며, 캄보디아 국가협력체계 전략 방향에 공식 서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기술 창업가 육성과 파리협정 제6조 이행 준비, 녹색채권 시장 개발 등 녹색 투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시엠립주에서는 한국 기후테크 기업 베리워즈의 전기 툭툭을 시승하며 저탄소 모빌리티 현장을 살펴보고,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와 기후기술 및 탄소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라오스에서는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메콩강 유역의 초국경적 수자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라오스 총리를 예방해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GGGI

기관 성격 국제기구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IGC 조지메이슨대, 인천 세계시민캠프 성료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조지메이슨대학이 개최한 '2026 인천 세계시민캠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캠프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과 교동도의 접경·평화 자원을 활용해 세계시민교육과 평화교육,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토론, 스포츠 기반 협력활동을 결합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인천지역 24개 중학교에서 선발된 학생 30명이 참가해 원도심과 신도시, 도서지역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또래들과 교류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포용성과 협업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는 인천대학교 토론동아리 학생들이 진행자로 참여해 캠퍼스 탐방과 특강, 보드게임 등 식량안보와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참여형 교육을 지원했다. 참가 학생들은 인천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과 교동도를 찾아 접경지역의 역사와 평화의 의미를 배우고, 스포츠 기반 협력활동과 팀 프로젝트를 통해 소통과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웠다. 조지메이슨대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극지연구소, EU 남극 국제공동연구 참여 아시아 유일 기관

극지연구소는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AWI)가 총괄하는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SYNCHRONY(Synchronised Southern Ocean and Antarctic Observing System)'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지원을 받아 2026년 8월부터 2030년 7월까지 추진되며,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아프리카 27개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아시아에서는 극지연구소가 유일한 참여기관이다. 연구진은 쇄빙선과 자율관측장비를 활용해 남극과 남극해의 대기와 해빙, 해양, 생태계를 통합 관측하고, 기후변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참여기관 간 관측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새로운 기후·생태계 데이터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국제 극지 연구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기후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번 참여는 국내 극지 연구성과를 국제 공동연구 체계와 연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국제기구와 '유엔 글로벌 AI 허브' 유치 협력

인천시는 7월 23일 송도국제도시 경원재에서 송도 소재 15개 국제기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유엔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엔 글로벌 AI 허브는 전 세계 AI 표준과 윤리 규범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지역사회 협력 활동도 함께 공유됐다. 국제기구 대표들은 AI가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관리, 보건, 식량, 교육 등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데 공감하고 인천시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06년 유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UNAPCICT) 유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송도국제도시에 15개 국제기구를 유치했다. 인천시는 국제기구가 집적된 송도의 강점을 바탕으로 유엔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송도 소재 국제기구들과 관련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세사이언스파크 마스터플랜 착수… 송도 혁신생태계 구체화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인 연세사이언스파크(YSP Ⅱ)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사업 시행사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는 7억1천만 원을 투입해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YSP Ⅱ 마스터플랜 및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사업여건과 첨단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주요 연구시설의 건립 계획을 재조정하고, 건축기본계획과 송도 7·11공구 실시계획 변경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세사이언스파크는 바이오와 AI, 양자기술 등 미래산업 연구와 창업을 지원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 대상에는 송도세브란스병원, K-바이오 랩허브,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양자컴퓨팅 클러스터 등이 포함된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한정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변화하는 첨단산업 환경을 반영해 연구·의료·창업 기능이 연계된 혁신 클러스터 조성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밑그림이 될 예정이다.

MASON KOREA George Mason University

재단/법인 메이슨 코리아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4

KOPRI 극지연구소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주무기관 해양수산부
업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인천광역시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재단/법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국제캠퍼스)









ifez — AUTUMN BOOK Trip

IFEZ 가을 독서 여행

계절이 깊어갈수록 IFEZ의 도심은 저마다 고유한 이야기로 가득 차오른다. 빛과 햇살이 머무는 거대한 도서관부터 오롯이 나에게 몰입하는 아늑한 서가까지.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책 한 권이 건네는 아늑한 풍요로움 속으로 빠져들어 보자.

1

계절을 읽는 도서관
송도국제도서관

송도국제도서관에서는 빛과 자연, 도시와 책이 어우러지는 아주 특별한 미감을 경험할 수 있다. 수직으로 높게 솟은 빌딩 숲 사이, 따스한 나무 외관과 곳곳의 식물들을 품어낸 나지막한 건축물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낮고 아늑한 외관이 주는 친환경적 인상은 입구의 '그레이스홀'에 들어서는 순간, 하늘을 향해 웅장하게 뻗은 서가로 반전된다. 1층에서 시작해 3층까지 시원하게 이어지는 거대한 서고는 천장 유리창을 통과한 햇살을 받아 화사하게 반짝인다. 1층의 계단형 공간을 비롯해 각 층 어느 곳에 자리를 잡든 이 거대한 책의 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책으로 빽빽하게 채워진 공간 위로 아른거리는 맑은 가을 하늘까지. 도서관이 품은 모든 요소가 머무는 이에게 완벽한 가을 책 나들이를 선사한다.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66
운영시간
- 1층 어린이자료실, 3층 디지털존 09:00~18:00
- 2~3층 일반자료실(화~금) 09:00~21:00,
(토, 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송도국제도시
영상 바로가기



+ 정기간행물&신문코너
2층 한 편에는 취향껏 잡지와 신문을 펼쳐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다채로운 색감의 잡지 표지들이 먼저 눈을 즐겁게 하고, 우측으로 시원하게 트인 통창은 블라인드를 올리는 순간 계절을 담아내는 근사한 자연 미술관으로 변신한다. 창가 가득 쏟아지는 가을 햇살 아래, 다채로운 스토리가 넘쳐나는 간행물들을 넘겨보자. 오직 이 계절에만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독서 여정이 펼쳐진다.



ⓒ카페 꼼마 홈페이지

2

일상에 찍는 깊고 아늑한 쉼표
카페 꼼마

송도의 높다란 빌딩 숲 한가운데, 커피 한잔의 여유와 책 향기가 맞닿는 곳이 있다. '일상을 여행처럼'이라는 슬로건처럼 책과 커피, 문화를 통해 정겨운 쉼을 건네는 복합문화공간, '카페 꼼마'다.
특히 600평 규모를 자랑하는 송도점은 1, 2층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가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단순한 서점을 넘어 구매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열람용 도서가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어 부담 없이 머물기 좋다. 일상에 지친 직장인부터 학생, 주민들까지 이웃과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며 문화적 여유를 누리는 도심 속 아지트로 사랑받는 이유다. 선선한 가을날, 마음 맞는 이들과 함께 넓고 쾌적한 북카페 카페 꼼마에서 한 박자 쉬어가보면 어떨까.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층(송도점)
운영시간 매일 08:00~20:30(20:00 라스트 오더)



+ 큐레이션 코너 : _____의 책장

각 분야의 명사가 관심있는 주제나 이슈를 직접 선정해서 같이 읽어볼 만한 책 10권을 추천하는 코너로, 명사의 취향을 엿보면서 영감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북 큐레이션이다. 여기에 현장 직원들의 취향이 담긴 매장 곳곳의 추천 도서까지 더해져, '오늘 무슨 책을 읽을까' 하는 고민을 단번에 덜어준다.

3

오롯이 나에게 몰입하는 사색의 문
삼공삼문

'303'. 삼공삼이라고 읽는 이 문을 열면 바깥 세상의 소음은 순식간에 아득해진다. 청라에 자리한 '삼공삼문'은 글을 써온 대표의 깊은 취향과 책을 향한 진정성이 촘촘히 적셔진 프라이빗 북카페다. 따스한 원목 인테리어와 은은한 커피 향, 가사 없는 잔잔한 음악이 공간을 감싸며 온전한 독서와 사색의 정적을 완성한다.
이곳의 서가는 장식용 책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1~2시간 동안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시집과 에세이, 독창적인 색깔의 독립출판물까지 모두 주인장이 직접 읽고 엄선한 목록이다. 어떤 글을 읽어야 할지 아득할 때 가볍게 대화를 건네면, 개인의 취향과 친밀도에 맞춰 기가 막힌 책을 집어주는 센스 있는 큐레이션도 만날 수 있다.
타인의 삶이 담긴 기록에 귀 기울이고(귀 모양 로고), 매 순간 새로움(News)을 고심하는 이 비밀스러운 방. 자유로운 정적 속에서 책의 온기를 온전히 음미하고 싶은 이들에게 더없이 다정한 아지트가 되어준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어 더욱 밀도 높은 휴식을 약속한다.

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한내로72번길 7-15, 3층 303호
운영시간 화, 금, 토, 일 11:30~18:30
※ 매주 월, 수, 목 정기휴무 ※ 예약제 운영



+ 블라인드북

직접 읽고 고른 책을 하나하나 손수 포장하고 정갈한 발췌글을 덧붙인 '블라인드북'은 삼공삼문만의 다정한 제안이다. 끝장을 덮기 전까지 속단할 수 없는 문학의 묘미처럼, 포장지 위 문장만으로 책을 만나는 특별한 설렘을 선물한다. 소장용은 물론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도 제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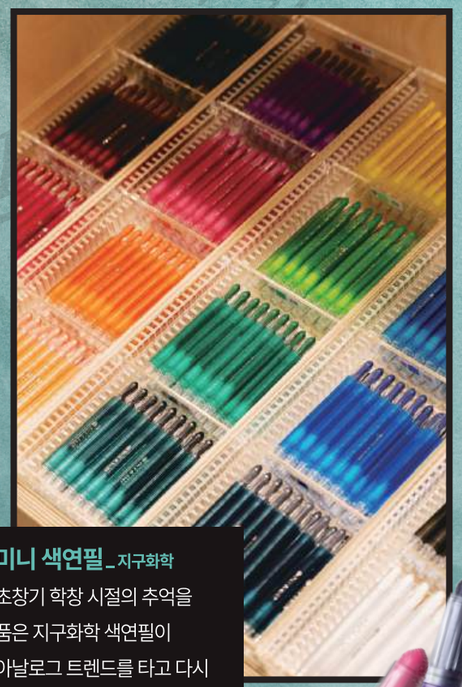
ⓒ삼공삼문



아날로그 리바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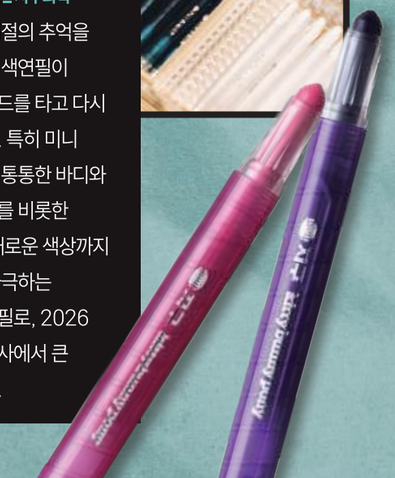
2026 Analog Goods Collection

AI 시대, 디지털 피로를 해소하고 진짜 감성을 찾는 사람들이 손끝으로 느껴지는 아날로그 굿즈들을 선택하고 있다. 일상에 상큼한 활력을 더하고 온전한 몰입을 선사한 2026년 상반기 트렌디한 아날로그 아이템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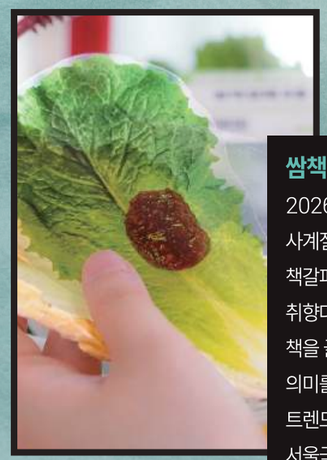
미니 색연필 _ 지구화학

초창기 학창 시절의 추억을 품은 지구화학 색연필이 아날로그 트렌드를 타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니 색연필은 작고 통통한 바디와 파스텔톤 컬러를 비롯한 72가지의 다채로운 색상까지 갖춰 감성을 자극하는 어른들의 색연필로, 2026 인벤타리오 행사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PD수첩 _ 포인트오브뷰 × 양지사

장수 브랜드 양지사의 PD수첩을 문구숍 포인트오브뷰의 감성으로 재해석했다. 2026 인벤타리오 행사 시작 직후 빠른 속도로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기존의 양지사 PD 수첩에 사과부터 빵, 연필까지 다양한 일러스트와 스토리텔링이 추가됐다.



쌈책갈피 _ 사계절출판사

2026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사계절출판사가 출시한 책갈피 굿즈. '좋아하는 재료를 취향대로 먹는' 쌈처럼, 취향껏 책을 골라 즐기라는 의미라는 의미를 담았다. 제철코어 트렌드와 맞아떨어지며 2026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책冊 손가방 _ 오이뮤

카드부터 명함, 스티커와 문구류까지. 독서에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알차게 담을 수 있는 북커버 겸 손가방이다. 톡톡한 패브릭 감촉과 사랑스러운 컬러가 매력적인 점이 책 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올해 '책冊 카드지갑'을 선보이며 귀여움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식물채집 책갈피 _ 오이뮤

패브릭 위에 스티치 자수를 새겨 오이뮤만의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담아냈다. 손끝의 오돌토돌한 감각과 아날로그 취향을 아끼는 문구 덕후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굿즈.

TREND ISSUE

Analog Revival

AI가 만드는 빠르고 효율적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반대로 손끝에 닿는 실체와 진정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구글 트렌드 10년 분석(2016~2026년)에 따르면 '아날로그' 관련 키워드의 긍정 감성 비중은 88%에 달한다. 소비자들은 아날로그를 단순한 옛것이 아닌 사랑과 매력, 친근함이라는 따스한 언어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구를 향한 사랑 가득, 인벤타리오 2026

지난 6월 열린 문구 페어 '인벤타리오 2026' 현장은 2030세대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얼리버드 티켓은 순식간에 동났고 취소표를 구하려는 전쟁마저 벌어졌다. 문구 편집숍 '포인트오브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참가 브랜드가 전년 대비 60%나 늘어난 110곳에 달하며, 취향과 아날로그 감성을 대표하는 문구의 강렬한 존재감을 증명했다.

블랙윙 연필 _ 흑심

연필계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블랙윙 시리즈. 특유의 세련된 디자인과 부드러운 필기감으로 어니스트 헤밍웨이, 월트 디즈니 등 유명한 예술인들이 애용한 연필 시리즈다. 빈티지 필기구에 진심인 사장님들이 있는 전문점 '흑심'에서 만나볼 수 있다.



IFEZ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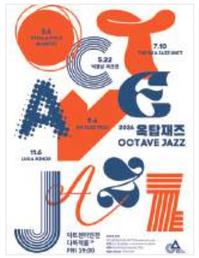
September-October

아트센터인천
위치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
문의 032-453-7700

트라이보울
위치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
문의 032-832-7996

아트센터인천

클래식부터 재즈, 뮤지컬, 무용 등 인천 예술의 중심 '아트센터인천'에서 열리는 주요 공연 일정을 지금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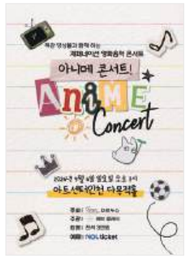
옥탑재즈 IV

공연일정 9월 4일(금) 19:30
장소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관람시간 100분
티켓가격 전석 2만 5천 원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46회 정기연주회 〈창단 60주년 기념음악회〉

공연일정 9월 5일(토) 17:0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약 90분 예정
티켓가격 전석 1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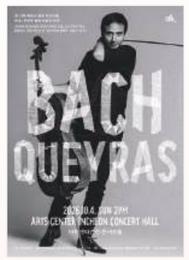
아니메 콘서트

공연일정 9월 6일(일) 15:00
장소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관람시간 약 100분 예정
티켓가격 전석 3만 원



클래식 인사이트 V : 인천시티오페라단 〈오페라로 떠나는 유럽 여행〉

공연일정 9월 12일(토) 17:0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80분
티켓가격 R석 2만 원, S석 1만 원



장-기엔 케라스 첼로 리사이틀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공연일정 10월 4일(일) 15:0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150분
티켓가격 R석 6만 원, S석 4만 원



일리야 라쉬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3개의 피아노 협주곡

공연일정 10월 24일(토) 17:0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약 150분 예정
티켓가격 VIP 12만 원, R 9만 원, S 7만 원, A 5만 원

트라이보울

공연과 전시,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보울'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자.



연희판놀음 인천아리랑 연가

공연일정 9월 4일(금) 19:30
장소 트라이보울 2층 공연장
관람시간 60분
티켓가격 전석 2만 원
문의 032-501-1454



트라이보울 기획전시 〈김범수×이탈 2인전 : 행복의 나라로〉

전시일정 7월 17일(토)~ 9월 30일 (일) 12:00~17:30
장소 트라이보울 3층 전시장
대상 전체 관람
티켓가격 무료
문의 032-833-5992



트라이보울 시리즈 사색하는 악기, 사유하는 몸짓 〈고도를 기다리며〉

공연일정 10월 28일(수)
장소 트라이보울 2층 공연장
관람시간 60분
티켓가격 전석 2만 원
문의 032-832-7992

| 이달의 스페셜 |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는 점자의 역사부터 기증의 숭고한 의미까지, 문자에 담긴 따뜻한 인간애를 조명하는 특별한 전시들이 펼쳐진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세상을 넓혀온 문자의 온기를 느끼며 뜻깊은 영감을 만끽해보자.

<점에서 세상으로 : 훈맹정음 100주년>

한글 점자 <훈맹정음> 창제·반포 100주년 기념하여 점자의 역사와 가치를 조명하고,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전시

기간 2026년 10월 7일(수)~2027년 2월 14일(일)
장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전시가격 무료
공동개최 국립한글박물관, 송암점자도서관

<수집가의 집>

근현대 성서 자료 101건을 수집한 김종일 선생의 삶과 기증자료를 통해, 기증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시

기간 2026년 6월 16일(화)~2027년 5월 16일(일)
장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지하 1층 상설전시실
전시가격 무료
문의 032-290-2000

Songdo ConvensiA



송도컨벤시아

ISSUE & CALENDAR

MICE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는 전시컨벤션센터이다. 국제 회의부터, 인센티브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을 아우르는 송도의 랜드마크, 송도컨벤시아. 최대 450부스까지 수용 가능한 전시장은 물론 국제 회의장, 행사장이 마련되어 다양한 국내외 컨벤션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MICE 산업의 떠오르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MICE 산업의 떠오르는 메카, 송도컨벤시아의 이달의 이슈부터 행사일정까지 한 눈에 담았다.

* MICE 산업?
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 전시회(Events & 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제24차 세계한상대회 송도서 열린다

‘대체불가 한상, 대체불가 대한민국’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가 오는 2026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재외동포청과 세계한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한상,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인천에서 세계한상대회가 열리는 것은 2009년과 201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며, 2023년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문을 연 이후로는 첫 개최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올해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세계한인주간’이 처음으로 지정돼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물론 세계한인대회까지 한데 어우러지면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치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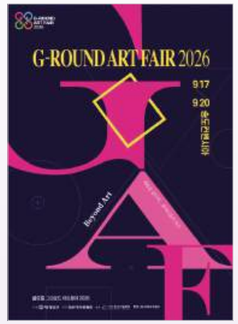
프로그램도 한층 풍성해졌다. 통합 개막식과 세계한상총회를 필두로 세계한상포럼, 영비즈니스리더스포럼, 기업전시회, 1대1 비즈니스 상담, 스타트업 경연대회, 투자유치설명회 등이 사흘간 이어진다. 이 가운데 기업전시회는 송도컨벤시아 1~3홀을 무대로 약 300개 부스 규모로 꾸려지며, 바이어 200여 명이 참여해 실질적인 수출 상담과 투자 유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7월 13일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와 협력 간담회를 갖고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2026년 9월 송도컨벤시아 행사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0	31	1	2	3	4	5
	SiQEW 2026 & ICOSS					가약인의 날
				2026 인천가구박람회 3차		
				33회 인천 베이비&키즈페어		
			제5회 인천국제환경기술컨퍽스			웨딩크라우드 웨딩박람회 (9월 1차)
				인하대학교 알루미늄 기술교류회		세바여x코미꼬 무료공연
6	7	8	9	10	11	12
웨딩크라우드 웨딩박람회 (9월 1차)	국제 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2026 국제전자회로 및 산업설장전(KPCA show) 전시 연계 회의			웨딩크라우드 웨딩박람회 (9월 2차)
2026 인천가구박람회 3차		2026 인차이나포럼 국제 콘퍼런스				2026 PGA SCHOOL
33회 인천 베이비&키즈페어			2026 국제 반도체 기판 및 첨단 패키징 산업전			
			2026 PM Business Academy			
				대한전립선학회 국제학술대회		
13	14	15	16	17	18	19
웨딩크라우드 웨딩박람회 (9월 2차)	2026 인천 MICE트래블마트		2026 국제교량구조학회 총회			인천웨딩박람회(9월)
2026 PGA SCHOOL			The 15th Annual Biologics Manufacturing Korea 2026			
				G-ROUND ART FAIR 2026		
					2026 케이펫페어 송도	
20	21	22	23	24	25	26
인천웨딩박람회(9월)						
G-ROUND ART FAIR 2026						
2026 케이펫페어 송도						
27	28	29	30	1	2	3
	제24차 세계한상대회					
			AIVC 2026			

작가 중심의 새로운 아트페어 실험

인천 송도서 9월 ‘그라운드아트페어’ 개막…



오는 9월, 인천 송도컨벤시아가 색다른 미술 축제로 채워진다. 세계일보가 주최하는 ‘그라운드아트페어(G-round ART FAIR 2026)’가 열린다. 주제는 ‘Beyond Art, Becoming Humanism(예술을 넘어 휴머니즘이 되다)’.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결국 우리가 향할 곳은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현대미술 거장과 원로·중견 작가는 물론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진 작가까지 폭넓은 세대가 참여해 회화와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최 측과 갤러리가 주도하던 기존 아트페어와 달리 작가가 직접 부스 위치를 정하고 전시할 작품과 디스플레이까지 구성한다는 점이다. 주최 측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 아트페어 참여 기회가 적었던 작가들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운영 방식도 기존 아트페어와 다르게 설계됐다. 홈페이지는 아티스트플랫폼과 연동돼, 부스를 클릭하면 그 작가가 누구인지, 어떤 작품을 냈는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부스 신청 방식 역시 원하는 자리를 작가가 직접 지정해 예약하는 선착순 구조로 바뀐다. 주최 측은 작가들이 창작에 전념하면서도 전시와 판매를 통해 다시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져야 한국 미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만 쏙쏙!

일타강사

정보를 찾는 건 귀찮지만,
IFEZ는 알고 싶은 당신에게
핵심만 쏙쏙! 일타강사가 알려주는
IFEZ의 모든 것!

퀴즈 풀고 선물 받자!

퀴즈의 정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매호 5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마감
2026년 9월 30일(수)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참여방법
연락처, 이름, 주소와 정답을 함께
기재하여 이메일로 전송

※ 당첨자는 정확한 이름, 주소,
연락처를 표기해 보내주신 분에 한 해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8년 연속 S등급 달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최우수(S) 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8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2025년도 추진계획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로, 인천경제청은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유치와 미래 발전 전략 수립, 도시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중략) 인천경제청은 앞으로도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명칭은 무엇일까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8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① S ② A ③ G ④ C

지난호 당첨자 조경희, 이동춘, 김회태, 구근형, 홍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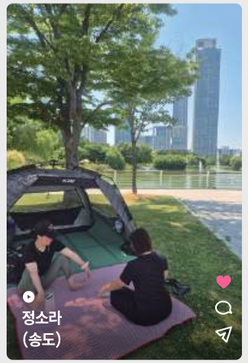
추억을 공유하는

IFEZ 일상 한 컷

IFEZ의 일상이 담긴 사진을 짧은 글과 함께 응모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로 <IFEZ 저널>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마감
2026년 9월 30일(수)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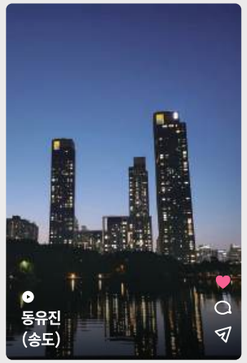
※ 사진파일, 사진설명,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며 사진과
사연은 다음 호에 소개됩니다.



송도 해돋이공원에서 아이들은 킥보드도 타고 물놀이도 하고, 엄마들은 그늘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멀리 야외로 가지 않아도 너무 즐거운 주말입니다^^



영종 씨사이드파크에 놀러 와서 커피도 한 잔하고, 전망대에 올라 바닷바람을 맞으며 풍경도 감상했어요! 날은 덥지만 하늘이 참 예쁘네요:)



오늘도 칼퇴는 실패한 송도 직장인! 그래도 퇴근길에 보는 송도 야경은 인정입니다ㅎㅎ 반짝거리는 불빛에 하루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 집 가기 전에 사진 한 장 찍고, 내일도 힘내보려고요!

Opinion Leader's Review on IFEZ vol.130

IFEZ의 미래를 설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IFEZ Journal>을 통해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했을까?
지난 호에 담긴 IFEZ의 주요 소식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리뷰해 보았다.

WRITER



김명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장

주요이력
현)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전)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 국민대학교 문예창작대학원 겸임교수

산업과 문화, 삶의 풍경을 하나의 도시 서사로 엮다

130호는 IFEZ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K-콘랜드, 송도 바이오, 정주 환경이라는 큰 축을 통해 도시의 미래 전략을 설명하면서도, 국제기구와 공원운영팀, 야간 여행, 문화 소식으로 독자의 일상 가까이 다가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K-콘랜드입니다. 송도·영종·청라를 하나의 트라이앵글로 묶고 문화, 관광, 콘텐츠, 교육, 산업을 연결한 구상이 단순한 개발계획을 넘어 도시의 새로운 정체성을 제안합니다. 대규모 시설과 투자 규모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공간이 어떤 기능과 시너지를 만들어낼지를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전달한 점도 돋보입니다.

송도 바이오와 '6-CORE' 기사 역시 IFEZ의 경쟁력을 숫자와 구조로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생산 시설뿐 아니라 연구, 인재 양성, 창업, 의료, 교육, 환경, 문화가 함께 성장해야 글로벌 도시가 완성된다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이어집니다. 복잡할 수 있는 정책 정보를 인포그래픽과 간결한 문장으로 풀어낸 편집도 인상적입니다.

무엇보다 130호의 장점은 도시의 성과를 '사람이 살아가는 경험'으로 번역했다는 점입니다. ESCAP 인터뷰와 공원운영팀 이야기에서는 국제협력과 행정의 현장을 만날 수 있고, IFEZ의 여름밤 여행과 K-투어 트렌드에서는 도시를 직접 걷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표지의 펜타포트 열기처럼 IFEZ가 산업의 도시를 넘어 문화와 자연, 세계가 만나는 매력적인 삶의 무대로 확장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더욱 기대됩니다.

<IFEZ 저널> 독자 후기 이벤트

후기를 부탁해!

IFEZ 저널에 대한 후기를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읽은 기사, 다음 IFEZ 저널에서
보고 싶은 기사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마감 2026년 9월 30일(수)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윤민경 님이 보내주신 후기

우연히 발견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다음 기획 기사로는 IFEZ 안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안드립니다. 개인적으로 IFEZ의 문화예술단체는 물론, 이를 향유하는 관객들의 수준도 매우 높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트센터 인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민간 합창단의 활동과 학생 오케스트라, 뮤지컬 교육 프로그램 등도 흥미로운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 IFEZ 저널에 대한 후기,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며 후기는 다음 호에 소개됩니다. 원고는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